

# “웹소설 루키작가 잡아라”... IP 확보 위한 인재발굴 속도전

네이버웹소설 ‘챌린지 리그’ 운영 인기 연재소설 유료판매수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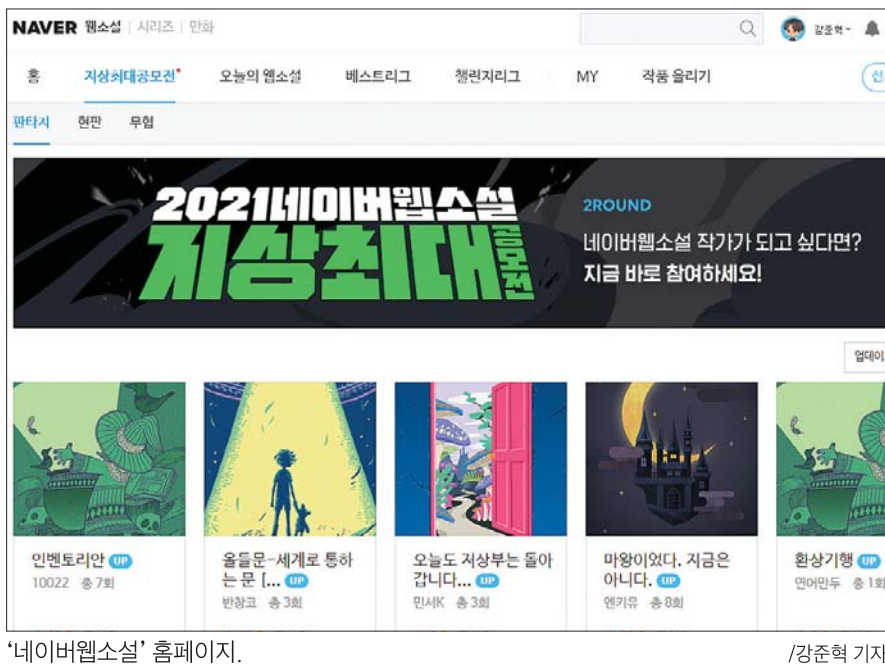
카카오 ‘페이지 스테이지’ 공개 작가양성·원고료 지급 등 기회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소설 IP(지식 재산권) 확보를 위해 아마추어 인재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성 있는 루키 작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정적인 웹소설 IP망을 구축할 경우 웹툰, 드라마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이에 양사는 단순히 등용문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금전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면서 아마추어 작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네이버, 챌린지리그에서 베스트리그까지 ‘단계별 발굴’

네이버웹소설에서 운영하는 챌린지리그는 자신의 소설을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자유 연재를 하다 조회수, 추천수 등에서 높은 인기를 얻으면 베스트리그로 승격되는 시스템



‘네이버웹소설’ 홈페이지.

/강준혁 기자

을 구축하고 있다. 챌린지리그에서 베스트리그로 승격된 작품들은 유료 상품 등록을 할 수 있고 네이버시리즈 앱을 통한 유료 판매 수익이 지원된다.

베스트리그에 등록 후 네이버 편집부에 의해 정식 연재 작품으로 선정되면 오늘의 웹소설 코너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정식 작가로 데뷔가 가능하다. 때문에 챌린지리그는 많은 창작자들 사이에서 웹소설 작가 데뷔를 위한 필수 코

스로 통해왔다.

작년에는 각 장르별 주간 랭킹을 기준으로 자동 승격 시스템을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챌린지리그에서 베스트리그로 승격되는 작품 수를 월 30여개에서 최대 월 24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도 했다. 이에 신인 작가들이 더 많이 배출되면서 네이버가 더 안정적인 웹소설 IP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 ‘카카오페이지 스테이지’ 공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웹소설 자유연재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스테이지’를 공개하며 아마추어 작가 모집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페이지 스테이지는 ‘페이지GO’ ‘스테이지ON’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페이지GO’는 카카오페이지에 가장 빠르게 데뷔할 수 있는 작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스테이지에 2개월 이상 연재한 작품 중 매월 성적이 높은 작품을 선정해서, 20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연재 중간에 바로 카카오페이지에 정식연재작품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스테이지ON’은 무료연재사이트임에도 창작자들에게 원고료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심사를 통해 스테이지ON으로 선정된 작품은 스테이지 연재를 통해 매달 작품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전체·시즌 완결까지 연재하고 카카오페이지에 데뷔하게 될 경우 기다루, 기한무 등 프로모션 혜택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추가 지원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웹소설 이용한 2차 콘텐츠도 속도

한편 웹소설 확보가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2차 콘텐츠 가공도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페이지 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의 경우엔 웹툰화가 진행되면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 웹툰 플랫폼 픽코마에서만 누적 조회수 5억3000건을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네이버웹소설의 ‘재혼 황후’도 웹툰화, 오디오 드라마가 진행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구독자들 사이에서는 주인공 가상 캐스팅이 진행되며 드라마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웹소설 IP를 활용한 2차 콘텐츠가 흥행했을 경우, 원작 웹소설의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환원 효과를 거두어 들일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이버·카카오는 웹소설 확보와 웹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작년 10월 발표한 ‘웹소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에서는 “웹소설 IP는 웹툰 IP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 활용 정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IP 확장 과정에서 웹툰보다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 SKT, 파트너사 대금 1100억 조기지급

추석 전 지급... 재정적인 부담 완화 공사업체·대리점 등 500여곳 대상

SK텔레콤이 추석을 앞두고 비즈니스 파트너사들과의 상생에 나선다.

SK텔레콤은 비즈니스파트너사들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휴 시작 전에 약 11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SKT는 중소 장비사, 공사업체 등 230개 기업에 용역 대금 약 6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전국 270여개 대리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500억원을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SKT는 이번 상생안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비스 품질 유지에 만전을

기해 온 외부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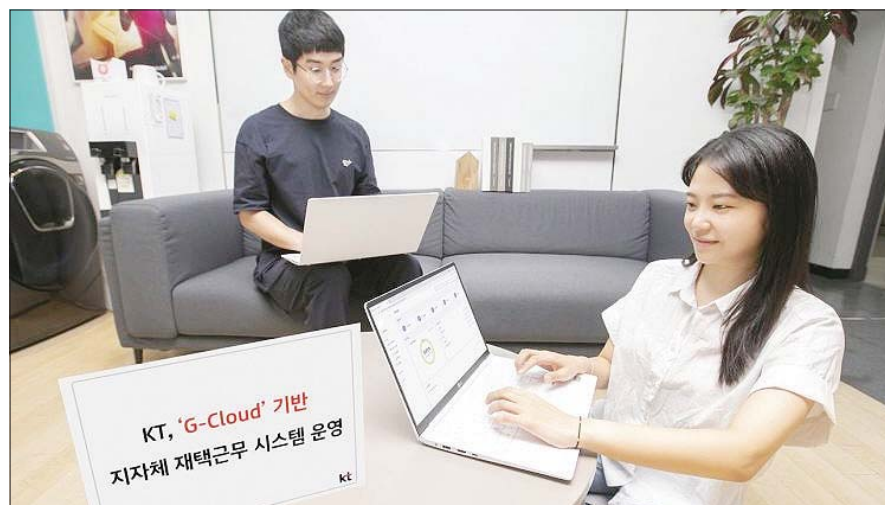
또한, SKT는 지난 4월 온라인 채용 사이트 사람인에 개설한 비즈니스파트너 채용관을 오는 11월까지 상시 운영하며 역량 있는 강소기업과 구직자들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비즈니스파트너 채용관은 이동통신·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SKT와 협력하는 ICT 기업 175개사의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SKT가 구인광고 및 배너 광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각 비즈니스파트너사의 채용 직무에 대한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 결과, 4개월여 만에 65개 비즈니스파트너사에서 135

명의 신규 인재를 영입할 수 있었다.

한편, SKT는 매년 우수 파트너사를 선정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프라이드 어워드’를 복지포인트 제공으로 전환해 해당 파트너사들의 직원 복리후생을 지원했다. 총 1억원 상당 포인트를 30개 우수 파트너사에 제공해 각자 임직원들이 여행, 문화활동, 건강 유지,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풍영 SK텔레콤 코퍼레이트1센터장은 “대면활동이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고객만족과 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을 위해 상생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준혁 기자



KT 직원들이 G-Cloud 기반 재택근무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KT

## KT, 공공기관 비대면 재택근무 지원

공공전용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KT가 지자체와 국가·공공기관의 비대면 재택 근무를 지원한다.

KT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전용 클라우드(G-Cloud) 기반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일상화 되며,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가·공공기관에서도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지자체는 국민의 생존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업무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을 준수하면서 중요한 업무를 집에서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동안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VPN 기반의 재택근무 방식은 특정 행정 시스템에만 접속이 가능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자가격리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의 업무를 대무자가 처리해야만 했다. 또한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한 노트북은 만남 시 매번 포맷을 진행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G-Cloud 기반 재택근무 시스템은

사용자별 권한에 맞는 고유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국경원 재택근무 보안기준을 충족한 솔루션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도 획득했다.

KT는 전용회선 구축부터 G-Cloud까지 통합 제공이 가능한 유일한 사업자다. 이 덕분에 G-Cloud 기반 재택근무 시스템은 지자체가 외부 연동 사업자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안전한 방식이며,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업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행된다. 개인 PC에는 남는 자료가 없어 행정문서 유출 우려가 낮다. 사내 메신저 사용도 가능해 내근자와 재택근무자 간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서창석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은 “G-Cloud 기반 재택근무 솔루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는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해 개발됐다”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 네이버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하세요”

네이버앱 등서 간편확인 지원

네이버 지도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를 ▲네이버앱 ▲네이버 지도 앱 ▲네이버 PC/모바일웹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용자는 지역명과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네이버 지도에서 사용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당구 국민지원금사용처’, ‘성남시 국민지원금’ 등을 검색하면 업체 검색결과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의 사용 가능 업체가 노출된다. 또한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같은 기본 키워드로만 검색할 경우 사용자가 위치한 주변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노출되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전통시장, 학원, 식당, 병원, 약국, 미용실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으며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네이버는 앞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의 일환으로 네이버앱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도 이달 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강준혁 기자

카카오맵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 지원

카카오의 모바일 지도앱 카카오맵이 오늘(6일)부터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지원한다.

카카오맵은 행정안전부의 ‘국민지원금 사용처’ 사이트와 ‘신한카드’에서 국민지원금 결제수단(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사용 가능한 가맹점 데이터를 제공받아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맵 앱에 접속 후 초기화면 상단에 위치한 검색바에서 ‘국민지원금’ 키워드를 검색하면 된다. 검색 결과에 나온 장소 중 한 곳을 선택하면 이용 가능한 매장의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강준혁 기자